

# 『기완별록』을 통해 본 연행복식 연구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복식사 전공  
mjlee815@aks.ac.kr

I. 머리말

II. 왕자패들의 복식

III. 놀이패들의 복식

IV. 맺음말

## I. 머리말

『기완별록』은 1865년 경복궁 중건 당시 거행된 대규모의 토목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배푼 공연을 보고 기록한 가사집이다. 경복궁 중건은 대원군의 집권 하에 추진되었던 국가차원의 거대한 토목공사였다. 경복궁은 처음 수도를 세울 때 지은 정궁(正宮)으로 규모가 크고 바르며 위치가 정제하고 엄숙하여 성인의 심법(心法)을 우리러 볼 수 있거니와 정령과 시책이 다 바른 것에서 나와 팔도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이 궁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란에 불타버린 후 다시 짓지 못하고 있어 조선왕조의 오랜 숙원이 되었다.<sup>1)</sup> 이처럼 경복궁 중건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경복궁의 역사가 힘든 일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그러던 중 1865년(고종 2) 4월 13일 손시(巽時)를 공사의 개시일로 잡고 태평성대의 상징으로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경복궁 중건이 전적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나라가 번창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막중한 공사비용이었다.

다행히 서울과 지방의 많은 백성들이 부역을 자원하며 구름같이 모여 들었고, 필요한 경비는 원납전을 비롯해 종친부, 선파(璿派) 등을 비롯해 대비전에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1867년(고종 4) 11월 17일 경복궁의 정전이 완공되었다.<sup>2)</sup> 2년 6개월 이상이 걸린 대역사였다.

그렇다면 『기완별록』은 언제 쓴 가사일까? 『기완별록』 가사집의 맨 마지막에 ‘을축 윤월 상한 벽동벽객서’라는 기록을 통해 을축년인 1865년 윤5월에 썼으며, 실제 연회는 그 이전에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연회가 벌어진 것은 고종이 경복궁에 친임했던 4월 25일이 유력하며, 연회는 서울 시정의 왈자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sup>3)</sup> 『기완별록』의 저자가 살던 벽동은 종로구 송현동·사간동·중학동에 걸쳐 있던 마을이다.<sup>4)</sup> 저자는

1)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4월 2일(병인).

2)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4월 5일(기사).

3) 사진실, 「산회와 야회의 공연 양상과 연극사적 의의」, 『고전회국연구』 3집(2001), 256-263쪽.

4) 벽동: 벽동은 종로구 송현동·사간동·중학동에 걸쳐있던 마을로 벽장처럼 동 사이에 길게 끼어 있고 다락처럼 길가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

경복궁 중건 당시의 연회행사를 볼 수 있는 지근거리에 살던 사람으로 연회가 시작되자 구경꾼으로 행사에 참여한 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색이 상당히 자세한 것으로 보아 과연 단순한 관람객이었는지 아니면 특별히 복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궁금하다.

이미 『기완별록』에 대한 연구<sup>5)</sup>는 1999년 윤주필 교수가 본 가사집을 발굴하고 교감 및 주석작업을 마치면서 국문학, 민속학, 연희학 등에서 관심을 가졌으며 몇몇 연구자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반면에 연회의 흥을 돋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복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식사 분야에서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는 자료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음에 기인할 것이다. 복식연구의 대상은 주로 실존하는 유물이나 전적류, 실록 등 관찬자료 및 개인문집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문학작품에까지 연구영역을 확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완별록』에 등장하는 연희자들을 왕자패와 놀이패로 구분하고 각 인물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사집에 묘사된 복식은 당시에 사용했던 복식명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 이에 기록화, 풍속화 등의 그림 자료 및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기존 연구성과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복식의 면면을 찾아보고자 한다. 물론 복식전공자라 할지라도 모든 복식을 다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연구자의 눈으로 『기완별록』에 수록된 각 연희자들의 복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완별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중인 및 하층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로 왕실이나 사대부의 복식에 비해 덜 밝혀졌기 때문에 이들 복식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복식사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완별록』에 수록된 왕자패와 놀이패에 등장하는 연행복식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복식문화

었다.

- 5) 윤주필, 「경복궁 중건 때의 전통놀이 가사집 『기완별록』」, 『문헌과 해석』 9호(1999); 정형호, 「경복궁 중건과 안성 바우덕이의 관련성 고찰」, 『한국민속학』 53호(2011); 사진실, 「산회와 야회의 공연 양상과 연극사적 의의」: 『기완별록』에 나타난 공연 행사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3집(2001); 박세연, 「조선시대 산대 기관인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박은빈, 「경복궁 중건가사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6); 김현정, 「노장과광의 연행방식 변화가 주제에 미친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를 풍성하게 해줄 뿐 아니라 조선후기 연회를 복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 II. 왈자패들의 복식

왈자(曰者)는 장안의 유희(遊俠)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유희는 대장부다운 호탕한 기질이 있는 사람을 일컫지만 조선후기 구체적인 왈자패들은 기술직 중인의 일부, 각사 서리 및 각 집 검종, 대전별감, 무예별감, 군영의 장교 또는 포교, 승정원 사령, 나장, 시전 상인 등이 이에 속한다.<sup>6)</sup> 『기원별록』에도 왈자패에 속하는 인물로 별감, 포교, 선전관, 나장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유희를 담당할 뿐 아니라 능행에 있어서는 의식의 성대함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복식이 화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각 인물들의 복식을 관모, 의복, 장신구로 세분하여 각각의 꾸밈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각 인물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을 밝혀보고자 한다.

### 1. 별감의 복식

본격적인 왈자집단의 행진은 별감에서부터 시작된다. 별감은 조선시대 장원서 및 액정서 소속의 관직으로 직책과 소속에 따라 대전별감, 중궁전별감, 세자궁별감, 세손궁별감, 처소별감, 무예별감 등으로 구분한다. 이들은 임금이나 세자가 행차할 때 어가를 시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비록 품계가 높은 벼슬아치는 아니지만 왕명을 전달하고 알현하는 일, 궁문과 궐문의 자물쇠를 관리하는 일, 임금이 쓰는 붓과 벼루를 관리하는 일 등 궁중의 크고 작은 일을 담당할 뿐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왕과 왕세자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 특히 왕이 거동할 때 당당한 모습으로 봉도(奉導)해야 하는 그들의 역할이 그대로 복색에 반영되었다고 본다.<sup>7)</sup>

6) 강명관, 「조선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희의 발달」, 『민족문화사연구』 2(1992), 194쪽.

7) 국사편찬위원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두산동아, 2005), 258-259쪽.

『대전회통』<sup>8)</sup>의 규정을 보면, 별감은 자견(紫巾)을 쓰고 청단령을 입으며, 세자궁 별감은 청건을 쓰고 청단령을 입으며, 상복으로는 주황초립을 쓰고 직령을 입으며 조아를 띠는다고<sup>9)</sup>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增」에는 '무릇 배종하는 조하제신(朝賀諸臣)들의 복색은 모두 임금을 복식을 따른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특히 임금이 전좌(殿座)하거나 동가(動駕)할 때에는 제신들은 모두 융복을 입는다는 규정이 있다.<sup>10)</sup>

실제 1778년(정조 2) 액례의 복색을 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액례들의 복색을 홍의 하나로 통일시켰다. 이에 따라 차비별감은 성내(城內)·성의(城外)·궐내를 거동할 때 및 파문(把門)할 때에는 모두 두건에 홍색 직령을 착용하도록 하고, 능행(陵幸) 및 교행(郊行)을 갈 때에는 홍색 철릭을 입도록 했다. 그러나 무예별감은 전좌·거동은 물론 능행·교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철릭을 입고 초립에 호수를 꿋도록 하였으나 시위 외에는 파문할 때 두건에 철릭을 입도록 했다.<sup>11)</sup>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그림1-신윤복, <유곽쟁웅> 부분, 홍의에 초립을 쓴 차비별감



그림2-『원행을묘정리의궤』 반차도 부분, 홍철릭에 초립을 쓴 무예별감

8) 『대전회통』은 1865년 고종의 왕명에 따라 조두순, 김병학 등이 『대전통편』 이후 80년간 반포 실시된 왕의 교명, 규칙, 격식 등을 추보한 뒤 출판한 전례서이므로 『기원별록』 당시의 복식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9) 『대전회통』 권지 삼, 19, 의장.

10) 『대전회통』 권지 삼, 15, 의장.

(그림1)과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의를 입을 때에도 홍철릭을 입을 때에도 모두 초립을 착용하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완별록』에 등장하는 〈별감 1〉의 복식을 보자. 옷은 진남색의 창의를 입고 그 위에 홍의를 입고 초록색의 세조대를 매고 있다. 남색의 창 의 안에는 백수주로 만든 줄 한삼을 입고 손에는 선추를 단 부채를 들었다. 다음은 머리에 대한 치장으로 상투를 틀고 대자동곳을 껴하였으며, 그 위에 자색의 두건을 모양 좋게 숙여 썼다. 신발은 종이와 대나무 껍질로 만든 외코신을 신고 봉어모양의 행전으로 넓은 바지를 간편하게 조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가장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옷과 장신구로 별감의 전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은 별감복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중동치레이다. 중동은 허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리주변을 장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를 ‘무엇무엇’으로, 차고 있는 모양은 ‘쥬렁쥬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대모로 만든 장도이며 진옥으로 만든 이썬시개를 담은 통이다. 또 중국에서 들어온 이궁전이라고 하는 향을 담은 비취로 만든 향갑을 차고 있다. 다음은 옥색향라로 만든 허리띠를 두르고, 분홍갑사로 만든 귀주머니와 유록색 빙사로 만든 주머니에는 도래매듭으로 모양을 냈다. 이 외에도 당사(唐絲) 끈으로 갖은 매듭을 한 향주머니, 약주머니, 수주머니를 꿰는다. 장도, 치통, 향갑, 허리띠, 주머니 등 종류도 다양하지만 주머니 등에 꿰 화려한 매듭과 수 장식이 허리치장을 더욱 화려하게 꾸며준다.

다음으로 얼굴에는 자수정으로 만든 학슬안경을 쓴다. 학슬안경은 학 다리의 무릎처럼 생긴 안경으로 안경다리의 가운데를 접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경은 눈이 나쁜 노인들이 쓰는 물건이다. 그러나 젊은 별감이 눈이 나빠서 쓴 것인지 아니면 멋을 내기 위해 쓴 것인지 알 수 없다. 여기서는 너무 일찍 썼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안경을 사치의 개념으로 또는 패션 아이템으로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11) 『정조실록』 5권, 정조 2년 4월 4일(계사).

## 〈별감 1〉

<p>당당홍의<sup>12)</sup> 진남창의 초록분합씩<sup>13)</sup>을 썬고          빅슈슈 줄흔숨에 채금당선<sup>14)</sup> 선축<sup>15)</sup>을 달고          덕쫓동곳 죽지두건 모양 잇게 숙이 쓰고          지죽피 외코신에 부어형전<sup>16)</sup> 격이로세</p>	} 전체적인 묘사
<p>중동치레 무엇무엇 가진 괴물 주렁주렁          덕모장도 진옥치통<sup>17)</sup> 이궁전<sup>18)</sup> 비취향과          옥식항나 허리씩며 분홍갑스 귀낭<sup>19)</sup>와          유록빙스<sup>20)</sup> 도리킴지<sup>21)</sup> 가진 밧둑 당스근에          향낭 약낭 슈쭈머니 물식 고훈 향스 썬고          즈슈정 학슬안경 너도 너무 일죽 췌다</p>	} 중동치레 묘사

현전하는 풍속화를 통해 가사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림3, 그림4)와 같다. 여기에서는 초립을 쓰고 있어 상투에 꽂은 대자동곳은 확인할 수 없으며, 허리에 펜 갓은 패물 중 향낭, 약낭, 수주머니 등은 옷 속에 들어가 있어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홍의 사이사이로 살짝 살짝 허리에 차고 있는 주머니의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 
- 12) 당당홍의는 「계우사」의 주인공 무숙이가 기방을 찾아갔을 때 「중략」 대전별감 울긋불긋 당당(堂堂)홍의 색색이라(중략)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홍색은 거리낌 없이 뻗뻗한 태도를 드러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복색이다.
- 13) 분합씩: 세조대를 일컫는 것으로 가느다란 실띠이다.
- 14) 당선: 당선(唐扇)은 중국에서 만든 쥘부채이다.
- 15) 선축: 선축(扇軸)은 쥘부채의 오른쪽 사복에 꿰어 놓은 고리이다. 선쭈(扇鉤)는 부채의 고리나 자루에 다는 장식품으로 선초(扇貂)라고도 한다. 선축에 선쭈를 달아 부채를 장식한다.
- 16) 부어형전: 부어(鮑魚)는 붕어를 일컫는 것으로 발목에서 무릎 아래에 두르는 사각형의 천으로 소매부리처럼 만들고 위쪽에 두개의 끈을 달아 돌려 묶도록 하는 물건이다. 통형의 바짓가랑이 위에 둘러매면 마치 붕어모양으로 종아리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온다.
- 17) 진옥치통: (미상)옥으로 만든 이쭈시개 통이다.
- 18) 이궁전: 이궁전에 대한 해석은 현재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궁전(弛弓箭)으로 활시위를 벗겨 놓은 활과 화살이며, 다른 하나는 이궁전과 대방전은 중국에서 수입한 향의 이름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중동치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갓은 주머니 속에 넣은 향의 이름이 더욱 타당하다.
- 19) 귀낭자: 각낭(角囊)으로 양쪽 귀가 각이 진 형태의 주머니이다.
- 20) 유록빙스: 유록색은 밝은 녹색이며, 빙사는 얼음같은 느낌이 비단을 일컫는다. 〈한양가〉에서도 ‘얼음같은 누른전모라’는 표현이 있다. 이 역시 종이에 들기름을 먹여 마치 얼음 같은 느낌을 준다.
- 21) 도리킴지: 도리는 매듭의 일종이고, 썬지는 남자들이 담배 등을 넣는 주머니이다. 주머니의 입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매듭의 일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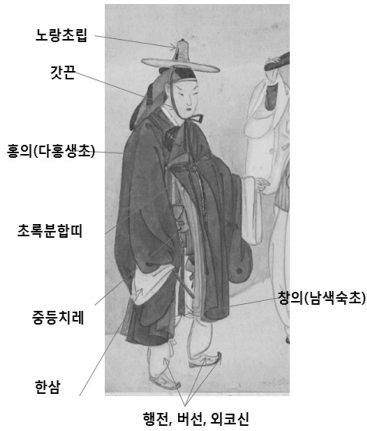


그림3-신운복, 〈아금모행〉부분,  
별감의 복식



그림4-신운복, 〈유곽쟁웅〉부분,  
별감의 복식

다음은 〈별감 2〉의 복식이다.

#### 〈별감 2〉

또 혼 별감 농형복식 츠림벌이 의슈하다  
노랑 초립 홍전꾸미 순은입식 단장구며  
키 갓튼 공죽우와 땃순 갓튼 호슈 씻고  
도금영즈<sup>22)</sup> 밀화퓌영 순호격즈 식이 죠타

초립 관련 묘사

십이승 준솔철닉 물식도 고을시고  
이광단 너분 썩를 흥복통 놀너 땃고

의복 관련 묘사

편숙마 실총승혜<sup>23)</sup> 낙복지로 들메엿니<sup>24)</sup>  
한 죽지 처지우고 또 한 죽지 혼음거려  
숨승보션 발립시는 간들간들 하나 양이  
기가 출입 외입장이 네 아니면 뉘 잇쓰리

신발 관련 묘사

22) 도금영즈: 도금영자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도금한 갓끈이며, 다른 하나는 동구영자이다. 구영자는 갓끈을 갓과 연결해주는 금속으로 된 갈고리이다. S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재료에 따라 은구영자, 동구영자로 구분한다. 『이춘풍전』에 나오는 ‘(중략) 오피짜리 은구영자 산호격자 두 귀 밑에 달아 놓고...’라는 기록을 통해 여기에서는 립에 끈을 연결해주는 고리장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23) 승혜: 마혜(麻鞋) · 망혜(芒鞋) · 마구(麻屨) · 삼신이라고도 부르는 미투리이다. 미투리는 보통 6개의 날에 50-60개의 총을 세워 정교하고 날씬하게 만드는데, 재료나 만들새 또는 만든 곳에 따라서 왕골신, 청을치신, 부들신 등으로 불린다.



먼저 별감의 트레이드마크인 노랑초립에 대한 묘사이다. 초립을 꾸미기 위한 장신구가 화려하다. 홍전꾸미는 붉은색의 상모를 가리키고 ‘순은입식 단장구’는 순은으로 된 입식으로 갓을 장식했다는 뜻이다.<sup>25)</sup> 키 모양의 공작우와 맥순 같은 호수를 뜻기 위해서는 순은으로 만든 입식이 있어야 한다. 이 입식은 신분에 따라 소재의 차이가 있었으나 고종 대에는 이러한 기준이 많이 해이해져 별감도 순은으로 입식을 꾸몄던 것으로 보인다.(표1)

표-1 초립에 꽂는 장식물

			
공작우	키	맥순	호수

〈별감 2〉의 무예별감 역시 모자치장이 현란하다. 갓끈의 종류도 다양해 하나는 천으로 되어 턱 밑에서 묶는다. 이는 가장 실용적인 목적으로 갓을 턱 밑에 묶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장식용으로 길기도 길고 패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별감의 영자에 사용된 재료는 도금영자, 밀화패영, 산호격자 등이 있다. 특히 패영은 신분을 구분하는 단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감들도 색이 좋은 밀화, 호박, 산호 등을 애용했다.

다음은 옷에 대한 묘사이다. 옷은 십이승의 잔살철릭이다. 철릭은 의와 상을 연결하면서 허리에 주름을 잡은 포로, 주름의 간격은 1-2mm 정도의 아주 잘게 잡은 것에서부터 2cm까지 있다. 잔살철릭은 주름을

24) 들메엠펙: 신이 벗어지지 않도록 발에 동여맬 수 있도록 끈을 단다. 이때 낙폭지로 끈을 만든다.

25) 단장구를 짧은 몽둥이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머리장식에 대한 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므로 초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순은입식은 초립에 호수나 공작미를 꽂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단장(丹粧) 구(具)의 의미로 해석하는 옳을 것 같다.

잘게 잡은 것이다. 더구나 십이승<sup>26)</sup>으로 만들었으니 옷감 자체도 고와 최고급의 철릭임을 알 수 있다. 철릭 위에는 넓은 허리띠인 광다회를 가슴과 배 사이에 눌러 댔다.

신발에 대한 묘사도 자세하다. 발에는 미투리를 신었다. 미투리는 편숙마, 실, 낙폭지 등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종이로 발과 신을 연결할 끈을 만들었다. 한 죽지 처지고 또 한 죽지 흐느거리는 것은 승혜를 신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삼승목으로 만든 버선을 신었다. 발 맵시가 가볍고 부드럽게 살랑살랑 하는 모양이 기생집 출입하는 외입장이의 모습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당시 별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화려한 별감의 옷맵시에서 호탕하며 풍류를 좋아하는 사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2. 포교(捕校)와 선전관(宣傳官)의 복식

포교는 서울의 좌·우포도청에 소속된 군관이다. 직제상으로는 포도청의 부장(部將)을 지칭한다. 이들은 통부(通符)라는 표찰을 휴대하고 포졸과 함께 서울과 근교의 치안을 담당하며, 지정된 구역 내를 순찰하고 범법자들을 체포하는 일을 담당한다. 포교는 ‘교속(校屬)’이라 하며 포졸(捕卒)과는 구분되는 포도청의 장교집단이다.

선전관<sup>27)</sup>은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던 선전관청에 소속된 관인이다. 이들은 주로 시위·왕명전달·부신출납(符信出納) 등의 일을 관장한다. 이들은 중간계층인 별감이나 포교, 나장과는 달리 양반층에서 담당하는 무반직(武班職)이다. 특히 무반직 중 청직에 해당하며 당당한 무반가 출신이 아니면 맡을 수 없는 직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자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물정을 익히고 출세의 기반을 닦았다.<sup>28)</sup>

행행이나 능행 등의 반차도 자료에서 이들의 복식을 보면 『기완별록』에 등장하는 포교나 선전관의 복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포교라고 하여 반드시 병거지만을 쓰거나 흑색의 전복만을 입는 것이 아니며

26) 승: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로 '새'라고도 한다. 일승은 날실 80올로 십이승은 날실의 수가 960올이다. 버선을 만드는 포는 삼승목이므로 십이승은 아주 고운 포에 해당한다.

27) 선전관은 정3품에서 종9품까지 있다.

28) 강명관, 앞의 글, 190쪽.

선전관이라고 하여 반드시 융복인 철릭만을 입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림을 그릴 때 장면의 상황을 극대화하거나 그림의 판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색깔에 변화를 준다거나 복식에 차이를 둔다. 이는 그림 자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기완별록』속 포교와 선전관의 복식을 보자. 이들의 복식은 군복이다. 군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융복(戎服)이고, 다른 하나는 군복이다. 『기완별록』에서도 포교는 군복을 입었으며, 선전관은 융복차림이다. 융복과 군복은 조선 초부터 등장한다. 그러나 1793년(정조 17) 병조판서 임제원이 우리나라는 복장종류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융복과 군복의 제도를 개혁하자는 상소를 올렸다.

융은 군과 그 의미가 같은데도 군이 구별을 두어 그 제도를 다르게 하고 이름을 융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의가 없습니다. 북포 온필의 비단을 재단하여 대략 상고시대의 의상처럼 만들고 또 절풍건에는 길복은 채색을 정교하게 칠해 놓아 넓은 소매에 넓은 채양이 이미 선명하고 아름다운데 또 치자물을 들어 장식하고 밀랍을 발라 꾸미니 모두 겉꾸밈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갓을 쓰고는 세찬 비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이 옷을 입고는 말타고 달리기에 편리하지 못해 실제 사용하는 데에는 온갖 방해만 있고 조금도 편리한 점이 없습니다.<sup>29)</sup>

비변사에서 융복과 군복이 같으므로 융복을 없애 번잡함을 줄이자는 의견을 올렸다.

군복과 융복이 모두 시위에 쓰이는 복장인데 한 반열 안에서 누구는 군복을 입고 누구는 융복을 입는다는 것은 구별하는 데에도 전혀 의의가 없고 의장만 번잡할 뿐입니다. 더구나 전립과 협수를 배워하는 반열에게 시험 삼아 착용하게 했던 예도 있었습니다. 진실로 의리에 어긋나지 않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다면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순전히 군복만 착용하는 것으로 그 제도를 정한다면 아마 번잡을 줄이고 편리함을 취하는 방법에 합당할 것입니다.<sup>30)</sup>

그러나 정조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옛날에 없던 일이라도 유익함이 있으면 시행하는 것이 맞기에 융복을 입는 풍습이 오래되었고, 함흥본궁에도 철릭을 보관해 둔 것이 있기 때문에 융복을 없앨 수 없다는 비답을

29)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10월 8일(무진).

30) 『정조실록』 38권 10월 11일(신미).

내렸다. 결국 동서반은 위내(衛內)의 사람들과는 다른 만큼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용복을 착용하고 대가를 따르는 것을 정식으로 삼게 하였다.<sup>31)</sup> 또 1864년(고종1)에도 대왕대비가 위내의 복색은 군복으로 마련하라고 전교를 내림에 따라 조신은 용복을 입되 철릭은 구례대로 품계에 따라 당상관은 남색을 입고 당하관은 홍색을 입도록 했다. 또 호수, 주립, 패영은 영구히 삭제하고 칠사립(漆紗笠)으로 마련하라고 했다.<sup>32)</sup> 그러나 이러한 전교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원임장신의 용복과 군복에 옥로장식을 허용<sup>33)</sup>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치의 폐단은 없애는 것이 마땅하지만 장복은 보기 좋게 입어야 하므로 용복을 입을 때 쓰는 주립(朱笠)·호수·패영 등을 모두 사용하도록 했다.<sup>34)</sup>

# 〈포교〉

순슈털병거지에 슈갑스 <sup>35)</sup> 너븐 갓끈 성선전 <sup>36)</sup> 증두리 <sup>37)</sup> 와 밀화지돈 홀논 한다	}	병거지 관련 묘사
흑갑스 전복 <sup>38)</sup> 우히 남전디 눌너 썩고		
석뉴나무 능장 쏫히 주석 고리 장식하야 저령저령 스을면서 예기 <sup>39)</sup> 잇게 오락가락 픽는 포교 모양이요 디령 귀츨 형상이라	}	부속물 관련 묘사

31) 『정조실록』 53권, 정조 24년 3월 17일(기사).

32) 『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7월 10일(무신).

33)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7월 30일(임진).

34) 『고종실록』 11권, 고종 11년 5월 25일(병인).

35) 슈갑사: 갑사는 평직과 2경 꼬임 사조직을 상하좌우에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직물 전체에 물고기 비늘과 같은 작은 무늬가 있다. 갑사는 정련의 유무에 따라 숙갑사와 생수갑사가 있으며 수자(壽字) 무늬가 있는 것이 수갑사이다. 슈갑사를 수를 놓은 비단이라고 해석한 것도 있으나 갓끈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를 놓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36) 성선전: 성성전(猩猩氎)으로 성성이 털이다.

37) 증두리: 『국립국어대사전』에는 ‘징두리 즉 건이나 관, 모자 따위의 아래를 천 따위로 덧댄 부분, 땀받이 구실을 한다.’고 하였으나 징도리(徵道里)는 모정과 양태 사이에 두른 장식끈을 일컫는다.

38) 전복: 전복(戰服)은 홀옷으로 소매와 쏘이 없으며, 양옆의 아랫부분과 등줄기가 허리에 서부터 끝까지 트여있다.

39) 예기(銳氣): 날카롭고 굳세며 적극적인 기세.

포교의 복식은 우선 짐승털로 만든 병거지를 쓰는데, 수자(壽字)가 놓인 갑사로 만든 넓은 끈을 턱 밑에 맨다. 증두리는 정두리로 『국립국어 대사전』에는 건이나 관, 모자 따위의 아래에 천 따위로 덧댄 부분을 가리키며 이는 땀받이 구실을 한다고 했으나 (그림5)의 기축년 『진찬의궤』에 수록된 전립을 보면 모정과 양태 사이에 두르는 장식을 징도리(徵道里)라고 하고 있다. 또 〈한양가〉에도 별감을 묘사하는 대목에 초립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도 ‘(중략) 남용사 증두리에 오동입식 껴서 달고 손뻥같은 수사 잣끈 귀를 가려 숙여 쓰고’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 증두리가 초립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동입식을 껴서 단다고 하였으므로 입식을 다는 부분에 증두리가 있어야 한다.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황색 끈목으로 된 증두리도 있으며, 〈한양가〉에서 노래하고 있는 남용사로 만든 증두리도 있다.(그림1) 또한 증두리에는 밀화지돈을 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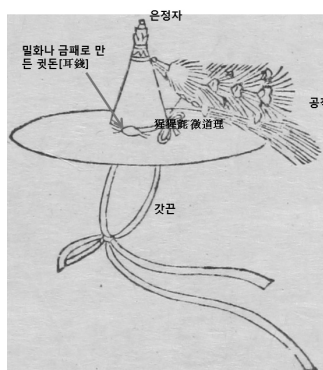


그림5-전립, 기축년 『진찬의궤』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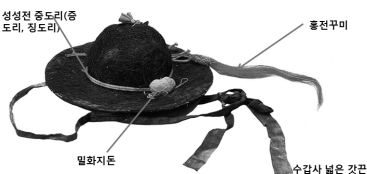


그림6-병거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다음은 포교의 의복이다. 흑갑사로 된 전복을 입고 그 위에 남색의 전대를 눌러 띠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군복에 해당하는 복색이다.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에는 산수병거지를 쓰고 잣끈을 턱 밑에 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흑색의 전복을 입고 전대를 띠고, 능장을 들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8)에서는 능장 끝에 주석고리가 달려있다. 전복은 홑옷으로 소매와 싹이 없으며 양옆숄기와 등술기가 허리에서부터 트여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전복을 반비의, 답호(搭護)·작자(縹子)라고 했으며, 『역어유해』에는 답호를 ‘더

그레'라고 한다. 『조선어사전』에서는 더그레를 ‘호의(號衣)’라고 한다. 따라서 전복, 호의, 더그레, 답호, 반비의 등은 모두 소매가 짧거나 없는 겹옷으로 시대에 따라 혹은 신분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할 뿐이다. 『철종철인후가례도감의례』 반차도에는 별군직이 흑색 호의를 입고 전립을 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복 안에는 소매가 좁은 협수포를 입었으며 그 안에는 바지저고리를 입었다. 또 바지에는 행전을 둘러 바지를 간편하게 줄이고 있다. 전복의 색이 다른 것은 방위에 따른 차이이다.



그림7-〈원행을묘정리의궤반차도〉 부분, 흑색전복을 입고 있는 포교의 모습



그림8-〈원행을묘정리의궤반차도〉 부분, 홍색전복을 입고 있는 대령포교

다음은 『기완별록』에 묘사된 선전관의 복식이다.

### 〈선전관〉

남스철닉 도홍색<sup>40)</sup>에 호슈입식 금픽갓쓴  
궁시환도 얹히 츠고 은안준마<sup>41)</sup> 등척잡아

복식 관련 묘사

좌우치빙 흥는 양이 헌거<sup>42)</sup>롭고 호괴<sup>43)</sup>잇닉  
별군직의 장속이요 선전관의 풍치로다  
가죽인 줄 알 것마는 시원호고 쾌홀시고

전체적인 분위기 묘사

선전관은 남사 철릭을 입고 도홍색의 띠를 매고 호수 입식을 꿇고 금패 갓끈을 늘어뜨렸다. 이들의 복식은 옷보다는 오히려 군복을 갖춰 입었을 때의 호기로우에 대한 묘사가 더 자세하다.(그림9) 먼저 궁시는 활과 화살을 가리킨다. 화살을 담은 것을 시복(矢箠)이라 하고, 활을 담은 것을 궁대(弓袋)라 하며, 이것을 통틀어 ‘동개(筒箇)’라고 한다. (그림 10)과 같이 궁대와 시복을 한 줄로 묶어 왼쪽 어깨에 매개줄로 연결하여 찬다. 그리고 아주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달릴 때의 당당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선전관의 복식을 김준근의 (그림11)에서 살펴보자. 안에는 소매가 좁은 험수포인 동달이를 입고 그 위에 전복을 입고 있다. 허리에는 요대를 띠고 그 위에 전대를 띠고 밀화와 산호가 격자로 있는 갓끈을 펜 병거지를 쓰고 그 위에 공작우와 상모로 장식했다. 등 뒤에는 화살을 담은 시복과 활을 담은 궁대를 오른쪽 어깨 아래에 시복과 연결해서 매고 있다. 군복을 입은 전형적인 선전관의 모습이다. 그러나 『기원별록』에 등장하는 선전관의 복식은 김준근의 그림이나 반차도에 등장하는 선전관의 복식과는 달리 융복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그림12)



그림9-〈영조기려도감의궤 반찬도〉부분, 남철릭을 입은 선전관



그림10-동개, 『세종실록』



그림11-김준근, 〈선전관의 모양〉, 선전관의 복식

- 40) 도홍색: 도홍색의 띠로 광다회이다. 광다회는 철릭에 띠던 실로 짠 두껍고 넓은 띠로 당상관이 입는 남철릭에 홍색 광다회를 띠고 품위가 낮을수록 청색, 옥색, 녹색 띠를 띤다.
- 41) 은안준마: 은안준마(銀鞍駿馬)는 은으로 만든 안장을 엮고 아주 잘 달리는 말을 일컫는다.
- 42) 험거롭다: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한 데가 있다는 뜻으로 선전관의 모습을 표현한다.
- 43) 호기잇는: 호기(虎驕)는 용맹스러운 기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역시 말 탄 선전관의 모습이다.



그림12-김준근, 〈용복을 입은 모습〉



그림13-김준근, 〈군복을 입은 모습〉

와 같이 남색의 철릭에 홍광다회를 띤 모습이다. (그림13)과 같이 군복을 입든 용복을 입든 무관의 장비를 상징하는 동개, 등채, 환도를 차고 있는 모습은 품체가 좋고 의기가 당당하다. 그렇기에 연회를 위해 임시로 꾸민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기완별록』의 작자는 선전관의 모습을 시원하고 쾌활하다고 평가하였다.

### 3. 나장(羅將)의 복식

나장은 병조에 딸린 하레이다. 이들은 의금부(義禁府), 형조(刑曹),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전옥서(典獄署), 평시서(平市署) 등에 배속되어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거나 귀양을 보내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 등을 맡는다. 1452년(문종 2) 의금부 도사 정옥경(鄭沃卿)이 처첩들을 거느리고 행랑의 누각 위에 있으면서 자기가 관장한 산대나례를 그 아래 모두 모아놓았다. 이때 나장 56명으로 하여금 쇠시슬을 쥐고서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고 갖가지 유희를 설치해 놓고 처첩들과 구경했다는 기록<sup>44)</sup>에서 나장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나장은 소유(所由)·사령(使令)·창도(唱導) 라고도 불렸다. 『경국대전』에는 나장의 복식을 조건에 반비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1506년(연산군

44)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1일(을해).





그림14-〈원행을묘정리의궤〉 부분, 나장의 복식



그림15-〈수원능행반차도〉 부분, 나장복식



그림16-신윤복, 〈주사거배〉 부분, 나장복식

12)에는 흑색철릭에 반비(半臂)를 입고 ‘뇌리(雷吏)’로 부르게 했다<sup>45)</sup>고 하여 나장의 복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14)는 철릭을 입고 그 위에 반비의를 입고 주장을 들고 있는 나장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림15)의 〈수원능행반차도〉에 보이는 나장은 반비를 입고 있으나 반비 안에 철릭을 입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신윤복의 〈주사거배〉에 등장하는 나장 역시 철릭 위에 까치등거리를 입었다.(그림16) 철릭 위에는 세조대를 띠고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 다만 이들 나장들은 평상시에는 쇠가래를 쓰지만 공적인 역할을 담당할 때에는 공작우를 꿇은 전립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 〈나장〉

쇠가릭<sup>46)</sup> 젓개 쓰고 가치웃<sup>47)</sup> 엇개 입고  
 주장들고 활기 치며 거들거려 짓는 거슨  
 나장일시 분명히니 추국좌괴<sup>48)</sup>가랴느냐

45) 『연산군일기』 62권, 연산군 12년 4월 13일(임술).

46) 쇠가릭: 쇠가래는 그 형태가 마치 삼각뿔처럼 생긴 농기구로 그 형태에서 관모의 이름을 땄다.

47) 가치웃: 까치등거리를 일컫는 것으로 흰색 붉은 실로 바둑판무늬를 놓아 장식하였다.

48) 추국좌괴: 추국좌기(推鞠坐起)는 관아의 우두머리가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공무를 집행하던 일이다.

『기원별록』에 묘사된 나장은 쇠가래를 쓰고 까치 옷을 어깨에 입었다. 쇠가래는 ‘갈때기’ 또는 ‘전건(戰巾)’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위를 뼈죽하게 만든 건이다. 이는 군병과 금부의 나장, 그 밖의 아래계급의 사람들이 쓰는 모자이다.<sup>49)</sup> ‘가치옷’은 흑의에 손가락 굽기 만한 흰 끈으로 바둑판무늬를 놓아서 만든 옷을 말하며, 소매가 없는 반비로 ‘까치등거리’라고도 한다. 이처럼 흰색 실로 무늬를 놓아 만든 옷은 나장의 차림에서만 확인되므로 이를 특히 ‘나장복’이라고 한다.

### III. 놀이패들의 복식

『표준국어대사전』에 산회는 ‘인형극을 달리 부르는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산회에 대한 정의는 좀 더 복잡하다. 김재철, 송석하는 산회를 현전 탈춤인 산대극으로 보고 있으며, 조원경과 조동일은 국가적인 산대회로 보고 있다. 또 전경옥은 꼭두각시놀이로 봤으며, 사진실은 산대 위에 잡상을 만들어 조작하는 산대잡상놀이로 보았다. 이로써 산회와 야회가 특정한 연극 작품이 아니라 당대 지식인이 인식한 일반적인 연극 갈래라고 정의하였다.<sup>50)</sup>

여기에서는 『기원별록』에 수록된 놀이패 중 서울과 지방에 등장하는 무동, 팔선녀, 신선, 선동, 기생 등의 연행복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놀이패의 복식은 복식자체보다는 연행하는 모습을 보다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복식은 중국의 복식을 묘사하기도 하고 조선의 복식을 묘사하기도 했다. 이에 그림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각 인물들에 대한 복식묘사에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기울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무동놀이

무동은 조선시대 궁중의 연향에서 춤추는 어린아이다. 풍물패와 걸립패 등에 등장하는 무동은 상쇠의 목말을 타고 춤추며 재주를 부린다.

49) 박윤미·임소연, 「조선 말기 나장복에 관한 연구」, 『복식』 66(2016), 4쪽.

50) 사진실, 「산회와 야회의 공연양상」, 『고전회극연구』 3집(2001), 253-256쪽.

『기원별록』에 등장하는 무동을 보면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복식에 대한 묘사보다는 춤동작의 현란함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무동 1〉

묘흔 얼골 고은 아히 뉘집 즈식 반흔여서 녹의홍상 <sup>51)</sup> 틈시 잇고 슈식피물 출논흐다	}	얼굴과 복식 관련 묘사
제비 갓치 가바야이 엇기 우히 올라 서서 손춤이며 칼춤이며 신기히고 이상흐다 조비연의 출연무나 양퉁진의 여상무나 옥저 갓튼 가는 손길 이마 우히 반듯반듯 녹운 갓튼 머리털은 두 귀 밋히 나슬나슬	}	춤동작 관련 묘사
이 역스 될 줄 알아 밀이 공부 하여튼가 장단에도 맞거니와 음놀의도 익을시고	}	춤추는 모습 찬사

### 〈무동 2〉

허다흔 무동픽가 도형장 흔가지는 어니 곳 무동노리 오방긔치 버러쓰니 슈척의 <sup>52)</sup> 도 곱거니와 춤이 괴기명무로다	}	복식 관련 묘사
십세 안팎 아히들이 슈단이 능논흐니 나면서 알아논가 빙와서 익여논가 무춘에 싱장흐야 문건이 춤뿐이믹 불교이즈속흐고 불습이즈롱이라	}	춤추는 모습 찬사

51) 녹의홍상: 녹의홍상(綠衣紅裳)은 결혼한 여자의 대표적인 복색이다. 그러나 무동은 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복색과는 맞지 않는다.

52) 슈척의: 수채의(繡彩衣)는 수를 놓거나 무늬가 있는 고급의 옷감으로 만든 옷이다.

〈무동 3〉

어니 픽 순흥노리 천연히 꾸며쓰니  
호녀복식 즈근 아히 추기<sup>53)</sup> 잇고 회미<sup>54)</sup>하다  
당마라기 굴깃 달고 보라믹 손에 밧고

복식 관련 묘사

키큰 놈의 엇기 우히 울연히(兀然-) 올느 서서  
밋히 놈 놀닐 디로 표연히(飄然-) 몸을 가져  
승강(昇降)에 괴탄(忌憚) 업고 낙왕(來往)에 넘녀(念慮)  
업네

춤추는 모습 묘사

무동놀이는 나이 어린 소년에게 여장을 시켜 남자의 어깨 위에 올라서게 한 후 춤을 추게 하는 놀이이다. 무동의 춤사위를 보면 가볍게 어깨 위에 올라가 손춤이며 칼춤을 추는 모습이 신기하고 색다르다고 하여 무동의 춤 솜씨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춤동작에 매료되어서인지 옷에 대한 묘사는 오히려 오류가 보인다.

무동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무동 1〉에서 말한 녹의홍상과는 맞지 않는다. 녹의홍상은 결혼한 여자를 상징하는 복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머리꾸밈도 어린아이는 머리를 땅기 때문에 두 귀밑에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는다. 더욱이 '녹운(綠雲)'은 여인의 머리술이 많고 윤택할 때 쓰는 수식어로 가체를 넣어 크게 만든 머리를 나타낸다. 검다 못해 질푸른색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의 묘사 역시 무동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그림17)



그림17-녹의홍상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무동

53) 추기: 추기(羶氣)는 거칠어서 곱살맞지 못한 습성으로 무동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모양이다.

54) 회미하다: 입은 옷의 매무새나 무엇을 써서 묶은 모양이 가쁜하다.

이 외에도 무동의 복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수채의(繡彩衣)와 호녀복색이 있다. 수채의는 수를 놓고 무늬를 새긴 옷으로 화려한 복식을 입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호녀복색은 중국여자의 옷차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 2. 성진과 팔선녀놀이

성진과 팔선녀는 김만중의 구운몽<sup>55)</sup>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기원별록』에는 성진과 팔선녀의 복식에 대한 묘사를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진(性眞)이라 호는 중은 가사(袈裟) 합장(合掌)하고 팔선녀(八仙女) 바라보고 석인(石人)갓치 섰는 거동 우웁다 저 화상(和尚)이 삼혼칠백(三魂七魄) 일허조다	} 성진 복식
산봉(山峰)마다 섰는 선녀(仙女) 화안성모(花顔盛貌) 즈랑호니 낭즈에 가화(假花) 꽃고 화관(花冠)에 금봉츠(金鳳釵)며 쌍환녹운(雙鬟綠雲) 두 귀 밋히 귀에꽂이 흔들니 능나의상(綾羅衣裳) <sup>56)</sup> 즐느호고 금슈원삼(錦繡圓衫) <sup>57)</sup> 화려(華麗)호다 김붓치와 꽃가지로 반(半)만 츠면(遮面) 호락말나 선넌히(嬋然-) 고은 츠틱(姿態) 구름으로 내려온 듯	} 팔선녀 복식

먼저 성진은 가사(袈裟)를 입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스님임을 알 수 있다. 가사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 법의로 장삼 위에 입는다. 장삼은 직령(直領)으로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가 넓은 승려의 겹옷이다. 그 위에 가사를 걸치는데

55) 구운몽은 서포 김만중이 1687년 천천 유배시절 어머니 윤씨 부인의 한가함과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지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고소설이다. 유교, 불교, 도교 등 한국인의 사상적 기반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불교의 ‘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고 하는 공사상을 담고 있다.

56) 능나의상: 능라의상(綾羅衣裳)은 능·라 등 비단으로 만든 치마저고리이다.

57) 금슈원삼: 금수원삼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화려한 비단으로 만든 원삼이며, 다른 하나는 금수를 놓은 흉배를 단 원삼일 수 있다. 여기서는 팔선녀가 입은 옷으로 흉배를 달기보다는 원삼을 만든 옷감 자체에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고급옷감의 원삼으로 이해된다.

이는 카사야(kasaya)에서 나온 말로 ‘부정색’을 뜻한다. 따라서 청·황·적·백·흑의 다섯 가지 정색 이외의 잡색으로만 염색하여 쓰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여러 개의 천을 직사각형이 되게 붙이고 네 귀에는 일월천왕(日月天王)이라는 수를 놓고 양쪽에는 끈을 단다. 겹으로 만들며 사방에 통로를 낸다. 입을 때에는 장삼을 입은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끈으로 매어 고정시킨다.<sup>58)</sup>

팔선녀의 복식은 쪽진 머리에 가짜 꽃을 꽂고 화관에는 금봉으로 만든 비녀를 꽂는다. 머리 형태는 두 개의 고리로 된 쌍환을 만든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머리모양을 묘사할 때 가장 최고의 찬사는 ‘녹운 같은 머리’이다. 이는 머리술이 풍성하고 윤기가 흐르며 검은 머리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미인을 상징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다. 두 귀 밑에는 귀걸이를 달아 흔들리게 하고, 옷은 능라(綾羅)로 만든 치마저고리를 입는다. 치마저고리 위에는 금수로 짠 원삼을 입는데 이는 최고의 성장을 뜻한다. 더욱이 비단으로 만든 부채와 꽃가지로 얼굴을 가린 자태는 구름을 타고 내려온 듯 신비롭다.

(그림18)과 (그림19)를 비교해 볼 때 성진이 장삼에 가사를 입고 있는 모습은 같다. 다만 왼쪽의 그림에서는 색색의 조각 천을 이어 붙인 가사를 입고 있다. 팔선녀의 모습 역시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림18)은 보다 다양한 표정과 자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채를 든 선녀도 등장한다.



그림18-〈구운몽도〉부분, 성진과 팔선녀, 포트랜드박물관소장



그림19-〈구운몽도〉부분, 성진과 팔선녀, 프랑스 국립중앙미술박물관소장

58) 안명숙, 「가사에 관한 연구: 료에 나타난 가사와 우리나라 가사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복식』 15(1990), 135-137쪽.

팔선녀는 모두 목에 영건을 두르고 있으나 영건을 두른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 (그림18)은 양팔에 영건이 느슨하게 걸쳐 있으며, (그림19)는 양 어깨에 드리워져 있다. 옷은 소매가 넓은 포에 허리에 늑백을 두르고 그 위에 세조대를 묶고 있다. 머리는 모두 환(環)의 형태에 진주 등의 장식을 하고 있다. 옷은 화려한 금수원삼을 입고 있다고 했으나 우리나라의 원삼은 아니다. 원삼은 조선후기 최고의 예복으로 깃은 맞깃형태이며 색동소매를 단다. 또 조선후기 여인들의 복식에 영건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팔선녀의 복식은 중국여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신선놀이

신선놀이에 등장하는 신선의 복색은 두 가지로 묘사되고 있다. 하나는 와룡관에 학창의이며, 다른 하나는 편복포에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연연이(偃然-) 안존 신선(神仙) 풍채(風采)가 단정(端正)하다 머리에 와룡관(臥龍冠)과 몸의는 학창의(鶴鬣衣)라	}	신선복식 1
--------------------------------------------------------------------	---	--------

한 노인은 흑수건(黑紗巾)에 황의(黃衣)를 입어쓰며 백기(白藜)를 손에 들어 정정히(丁丁-) 낙조(落子)하고 한 노인은 쓴것 업시 태상노군(太上老君) 머리 갖고 홍의(紅衣)를 입어쓰니 백수(白鬚)를 훑날며 흑기(黑藜)를 손에 드러 판(版)에 반만 드리오고 비슈이 지혀안조 중심히(潛心-) 슈(數)를 보며 한 노인은 황건(黃巾) 쓰고 청의(青衣)를 입어쓰니 훈슈(訓手)타가 핀즈 듯고 무안히 물너 안조 물읍 안고 눈을 감아 스몽비몽(似夢非夢) 조으는 듯 한 노인은 청수건(靑紗巾)에 백의(白衣)를 입어쓰니	}	신선복식 2
----------------------------------------------------------------------------------------------------------------------------------------------------------------------------------------------------------------------------------------------------------------------------------------------------------------------	---	--------

신선 1은 와룡관(臥龍冠)을 쓰고 학창의(鶴鬣衣)를 입고 있다. 와룡관은 중국 삼국시대 제갈량이 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림20)은 가장자리 에 검은 선을 두른 연한 녹색의 학창의를 입고 세조대를 띠고 있는 이하옹의 모습이며,<sup>59)</sup> (그림21)은 도포에 홍색의 세조대를 띠고 와룡관을

59) 이하옹(1820-1898)은 고종의 친아버지로 1864년부터 1873년까지 약 10년간 어린 아들을 대신하여 국정을 이끌었으며 안으로는 유교의 위민정치를 내세워 전제왕권의 제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림20- 〈이하응 초상〉,  
와룡관에 학창의를 입고  
있는 모습, 서울역사박  
물관소장



그림21- 〈신임초상〉부분, 와룡관에  
도포를 입고 있는 모습,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쓰고 있는 신임<sup>60)</sup>의 모습이다. 이하응과 신임의 와룡관은 소재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 이하응의 와룡관의 끈의 수가 8개인 반면 신임은 5개로 끈의 수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응의 와룡관이 신임의 것보다 정교해 보인다.

학창의는 신선이 입는 옷이라고 하여 덕망이 높은 학자가 편복으로 입었던 것이다. 소매가 넓고 뒷술기가 갈라졌으며 가장자리에 검은 선이 둘러져 있다. 학창의는 심의(深衣)와 비슷해 보이지만 소재에 있어서는 훨씬 다양하게 활용되어 여름에는 저마나 면, 봄·가을에는 명주나 비단으로 만들며 세조대나 광대로 묶었다. 학창의는 심의와 같이 복건을 쓰기도 하지만 『해행총제』에 의하면 통신사로 일본에 간 사신 중 부사(副使)가 학창의를 입고 와룡관을 썼다는 기록이 있으며,<sup>61)</sup> 『송자대전』에는 학창의는 야복인데 초야에 있을 때 적합하여 만년에 많이 입었다고도 했다.<sup>62)</sup> 또 옥소 권섭도 학창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60) 신임(1642-1725)은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판서까지 오른 조선의 문신이다. 시와 글씨에 능했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61) 『해행총제』, 『동사록』, 일기, 3월 22일, 윤 3월 29일, 6월 25일.

62) 『송자대전』, 제18권, 어록, 최신의 기록 하.



학창의를 도가(道家)의 옷이라고 하였으며 그 제도가 오래 되어서 엄중하지 못해 소매는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또 소매가 없기도 하다고 했다. 색도 청색, 백색, 황색, 흑색으로 다양하며 가장자리에 두른 선의 넓이도 다양해 자유롭게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63)</sup>

신선 2는 (그림22, 그림23)에서 볼 수 있는 노인들의 복식이다. 한 노인은 ‘흑사건에 황의’를 입고 흰들을 손에 들고 바둑을 두고 있으며, 또 한 노인은 머리에 모자는 쓰지 않았으나 ‘홍의’를 입고 흰 수염을 휘날리며, 검은 바둑알을 손에 들고 있다. 한 노인은 ‘황건을 쓰고 청의를’ 입고 훈수를 두다가 편잔을 들고 무안하여 물러 앉아 무릎을 안고 눈을 감고 꿈인지 생시인지 즐고 있는 모양이고, 한 노인은 ‘청사건에 백의’를 입고 호로병이 달린 지팡이에 몸을 실어 의지한 채 한 손은 등에 지고,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

네 명의 노인은 각자 복색이 다르다. 흑사건에 황의를 입은 사람도 있고 모자 없이 홍의만을 입은 사람도 있다. 또 황건을 쓰고 청의를 입기도 했으며, 청사건에 백의를 입고 있는 사람도 있다. 모두 편복의 포에 황색, 홍색, 백색, 남색의 옷을 입고 있어 흑색을 제외한 사방색의 복색이 보인다. 모두 편복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모자는 편복에 해당하는 건을 쓰되 옷의 색과는 대비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관모의 색은 상중(喪中)이 아닌 경우 대체로 검정색을 쓰는 것에 비해 신선들은 흑사건을 비롯해 황색과 남색을 착용했다. <상산사호도>에 보이는 복식



그림22- <상산사호도>의 부분,  
4인의 신선과 동자, 개인소장



그림23- <상산사호도>의 부분,  
신선과 동자

63) 이민주, 「옥소 권첩의 학창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2004), 85쪽.

은 모두 중국복식으로 『기완별록』에는 중국신선과 조선의 신선이 동시에 보이고 있다. 또한 놀이패들의 모습이 민화로 그려져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놀이패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4. 선동놀이

『기완별록』에 보이는 선동놀이는 7, 8세의 어린아이가 학의 등에 올라 앉아 춤을 추는 놀이이다. 학무는 2마리의 학이 몸을 흔들기도 하고 부리를 맞추는 시늉을 내기도 하고 부리를 땅에 찌는 시늉, 목을 쳐들고 부리를 놀리며 벌레를 삼키는 시늉 등 학의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며 연통을 쪼면 그 안에 숨어있던 두 동녀가 나오면 학이 놀라서 물러나는 것이 놀이가 끝난다. 그런데 『기완별록』 속에 등장하는 선동놀이는 학의 등에 올라 앉아 춤을 추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선동의 복색은 ‘쌍상토에 색등거리를 입고 삼색호로 수주머니’를 차고 있다. 그리고는 학의 등에 올라 앉아 당실당실 춤을 추는 모습이다. 학의 모습은 ‘현상호의(玄裳縞衣) 학정홍(鶴頂紅)’이라고 하여 검은 치마 흰 저고리를 입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학의 정수리에 있는 붉은색은 학을 상징한다.(그림24)

또 어니 픽(牌) 선동노리(仙童一) 이도 쏘흔 가관(可觀)이라 칠팔세(七八歲) 즈근 아히 당돌(唐突)호고 지롱쌔다 쌍(雙)상토 식(色)등거리 삼색호로(三色胡虜) 슈(繡)쥬머니 선명(鮮明)흔 복식(服色)으로 학(鶴)의 등에 올닌 안즈	}	선동복식
--------------------------------------------------------------------------------------------------------------------------------------------	---	------

당실당실 춤을 쥬니 그 학(鶴)은 가학(假鶴)이느 제작(製作)이 의연(依然)하야 현상호의(玄裳縞衣) 학정홍(鶴頂紅)에 삼신산(三神山)을 지느온가 불노초(不老草)를 입에 물고 나리 우히 선 동티(動態)와 승피백운(乘彼白雲) 하라는 듯 스름이 학(鶴)을 니고 오락가락 하것마는 보느 바의 학(鶴)이 나라 비회(徘徊)하느 형상(形狀)이라	}	학춤묘사
----------------------------------------------------------------------------------------------------------------------------------------------------------------------------------------------------------	---	------



그림24- 학무, 〈학연화대합설무〉, 문화재청

## 5. 기생놀이

『기원별록』에 묘사된 어느 때 기생놀이를 보면 먼저 기생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기생의 얼굴을 보면 성적을 약하게 한 모습이다. 성적(成赤)은 혼인을 앞둔 신부가 백분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해 솜털을 제거한 후 입술연지와 양 뺨에 연지와 곤지를 찍는 것이지만<sup>64)</sup> 연지를 찍는 것을 일컫기도 한다. 조선시대 미인의 기준은 얼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며, 풍성하고 윤기가 흐르는가에 있었다. 선빈(鮮鬢) 즉 고운 귀밑머리를 짙은 녹색의 구름같고 눈썹인 아미(蛾眉)는 초월(初月) 즉 초승달 같다.

### 〈어느때 기생놀이〉

(중략) 단장도 아리썩다 반성적 보조기에 도화가 근심나나듯  
선빈은 녹운갓고 아미는 초월갓티 판머리 압뒤빈혀 가리마 슈팔년과  
초록항나 것막이며 당남갑스 겹치마와 빅숙갑스 너른바지  
홍전운혜 고을시고 노리기 가진픽물 당스술이 식이느니  
청홍상 흥쌍으로 말티와 노리할 제 박쥬우슨 히를가려 함교함티하는 모양(중략)

64) 『하재일기』 계사년 2월, 성적

머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땀머리 즉 가체는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해 비녀를 앞뒤에 꽂고 기생의 관모인 가리마를 쓴다. 이 때 슈팔넌은 장식꽃인 수파련이 아닌가한다. 그런데 가리마와 나란히 있는 것으로 보아 가리마에 장식을 한 무엇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가리마는 기녀, 의녀 등 특수층 여자가 얹은머리 위에 쓰던 쓰개이다. 차액(遮額)<sup>65)</sup> 이라고도 하는데 『임하필기』나 『증보문헌비고』에서는 검은색 또는 자주색 비단의 가운데를 접어 두 겹으로 하고 두꺼운 종이를 그 안에 접어 넣고 머리에 쓰는데 이마에서 정수리를 덮고 뒤에 드리워 어깨를 덮는다고 했다.<sup>66)</sup> 이때 의녀는 검은 비단으로 만들고 기녀는 검은 베로 된 것을 사용함으로써 신분을 구분하였다. 아래의 왼쪽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리마를 쓴 아래로 구름 같은 머리가 드러나 보이며 특히 귀밑머리가 풍성해 보인다.(그림25)

다음 기생의 복식은 초록항라로 만든 결막이를 입고 중국산 남색 접치마와 속옷으로 백숙갑사로 만든 너른바지를 입고 붉은색의 모직으로 만든 운혜를 신은 모습을 그리고 있다. 초록색 항라로 만든 저고리와 중국산 비단으로 만든 남색치마를 입고 속옷으로 너른바지를 입었다. 붉은색의 운혜를 신고 있는 모습만 해도 고운데 여기에 여러 가지 노리개를 당사술<sup>67)</sup>에 꿰어 보니 색이 좋다고 했다. 청색치마와 홍색치마를 한 쌍으로 해서 말 태위 놀이할 때 박쥐우산<sup>68)</sup>으로 해를 가리고 교태를



그림25-신윤복, <청금상련> 부분, 가리마를 쓰고 있는 기생



그림26-신윤복, <전모 쓴 여인> 부분, 전모 쓴 여인



그림27-전모, 석주선기념민속 박물관 소장

65) 『연려실기술』, 별집 13권, 정교전고, 관북.

66) 『임하필기』 제17권, 문헌지장편, 개두(蓋頭).

67) 별갑의 복식에서는 당사끈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기생의 복식에서는 당사술로 표현하

품은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때 박쥐우산은 일명 전모(氈帽)이다. (그림26)의 전모는 우산처럼 펼쳐진 테두리에 살을 대고 종이를 바른 다음 기름에 절여 만든다. 전모의 가장자리에는 수복부귀, 박쥐무늬 등의 무늬를 넣어 장식하므로 『기완별록』에서 말하는 박쥐우산은 기생들이 쓰는 전모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림27)

#### IV. 맺음말

『기완별록』은 1865년 경복궁 중건 당시 거행되었던 연회를 보고, ‘벽동병객’이라는 미상의 작가가 쓴 장편 가사집이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연회에 참석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복식 및 연회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연회에 참여한 인물은 크게 왈자패와 놀이패로 구분할 수 있다. 왈자패는 별감, 포교, 선전관, 나장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주변을 정리하고 관리함으로써 연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놀이패들은 무동춤, 탈춤, 사냥놀이, 팔선녀놀이, 금강산놀이, 서유기놀이, 신선놀이, 상산사호놀이, 선동놀이, 기생놀이, 축사놀이, 백자도놀이 등 신명나는 놀이판을 벌이는 역할을 담당했다.

『기완별록』은 1999년 윤주필 교수가 발굴하여, 교감과 주석을 달아 학계에 보고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기완별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복식 뿐 아니라 연회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조선후기 연회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기완별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왈자패와 놀이패로 구분하고 각 인물들의 복식을 그림자료와 문헌자료, 유물 등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밝힌 부분도 있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도 했으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를

---

고 있어 노리개를 장식하기 위한 매듭끈의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

- (68) 박쥐우산: 박쥐우산은 쇠로 만든 살에 방수처리한 형겼을 씌운 것이라고 하였으나 해를 가린다고 하였으니 우산보다는 양산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기생들이 쓰는 모자인 전모(氈帽)는 우산처럼 펼쳐진 테두리에 살을 대고 종이를 바른 뒤에 기름에 절여 만들며, 가장자리에 편복문 즉 박쥐무늬를 그린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자패로 분류된 별감, 포교, 선전관, 나장 등의 복식은 ‘농행복식’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농(弄)’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왕실 행차에 참여하는 인물들로 주변을 정리하고 의식의 성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화려한 복색과 놀랄 정도의 다양한 치장을 한다. 이에 농행은 ‘능행(陵幸)’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별감의 복식 중 ‘순은입식 단장구’에서 단장구를 별감이 손에 들고 있는 짧은 몽둥이로 해석하였으나 ‘단장구’는 모자와 관련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등장하기 때문에 공작우나 호수를 찢기 위한 순은입식의 ‘단장을 갖추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상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셋째, 별감의 중등치레인 ‘이궁전 비취향’에서 이궁전을 ‘이궁전(弛弓箭)’으로 해석하여 활시위를 풀어놓은 상태라고 해석하였으나, 〈한양가〉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궁전 대방전’을 통해 중국에서 들어온 향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포교가 쓴 병거지의 묘사 중 ‘성성전 중두리는 미상이라고 하였으나 기축년 『진찬의궤』 복식도를 통해 모정과 양태사이에 밀화 지돈과 함께 두른 장식 끈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차검증을 통한 연구 성과이다.

넷째, 놀이패의 복식은 왕자패에 비해 묘사가 소략하다. 그것은 놀이패의 특성상 복식보다는 연희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연희의 기원이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많아 우리나라의 복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묘사가 많다. 무동춤을 추는 무동은 녹의홍상을 입고 있다. 이는 기혼자의 복색으로 어린 소녀를 설명하는 복식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 성진과 팔선녀놀이에서 팔선녀는 머리에 가화를 꽂고 화관에 금봉채를 했다. 우리나라 여성은 머리자체에 꽃을 꽂는 풍습이 없을 뿐 아니라 귀걸이를 거는 풍습도 널리 퍼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크고 풍성한 머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머리 장식 외에 별도의 장신구를 얼굴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쌍환녹운 두 귀 밑에 귀에꽂이 흔들리네’의 표현 역시 우리나라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따라서 연희를 복원할 때 중국의 연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우리나라 식으로 바꿀 것인지에 따라 복식을 달리 고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생놀이에서 기생이 쓴 박쥐우산은 ‘전모(氈帽)’의 다른 표현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모는 우산처럼 펼쳐진 태두리에 살을 대고 종이를 바른 뒤에 기름에 절여 만든 쓰개류이다. 가장자리에 수복부귀 등의 길상어문 및 태극문, 나비문, 박쥐문 등의 무늬를 넣어 장식한다. 이는 태양뿐만 아니라 비바람도 막아주므로 ‘박쥐우산’이라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상으로 『기완별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식을 모두 복원했다고는 할 수 없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완별록』에 등장하는 왕자패, 놀이패의 인물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복식을 모자, 의복, 장신구 및 신발 등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새롭게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타전공과의 연계 속에서 『기완별록』의 내용은 더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 연희 복원을 위한 기초단계의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1차자료

『문종실록』.  
『연산군일기』.  
『정조실록』.  
『고종실록』.  
『경국대전』.  
『임하필기』.  
『연려실기술』.

### 2.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두산동아, 2005.

### 3. 논문

강명관, 「조선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흥의 발달」. 『민족문화사연구』(2), 1992, 181-207쪽.  
김현정, 「노장과장의 연행방식 변화가 주제에 미친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세연, 『조선시대 산대 기관인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박윤미·임소연, 「조선 말기 나장복에 관한 연구」. 『복식』(66), 2016, 1-12쪽.  
박은빈, 「경복궁 중건가사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사진실, 「산회와 야회의 공연 양상과 연극사적 의의」. 『고전회곡연구』 3집, 한국고전회, 2001, 251-302쪽.  
윤주필, 「경복궁 중건 때의 전통놀이 가사집 『기원별록』」. 『문헌과 해석』 9호, 문헌과 해석사, 1999, 197-232쪽.  
이민주, 「옥소 권첩의 학창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2004, 269-279쪽.  
정형호, 「경복궁 중건과 안성 바우덕이의 관련성 고찰」. 『한국민속학』(53), 한국민속학회, 2011, 173-211쪽.



## 국 문 초 록

『기완별록』은 1865년 경복궁 중건 당시 거행된 대규모의 공연모습을 기록한 가사집이다. 경복궁 중건은 흥선대원군의 주도하에 추진된 거대한 토목공사였으며, 당시 백성들의 고된 노동을 위로하기 위한 왈자패와 놀이패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복식은 연희를 이해하는 가장 일차적인 시각정보이다. 따라서 각 인물들의 복식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연희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각 인물 속으로 몰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완별록』에 등장하는 왈자패와 놀이패를 중심으로 각 인물들의 복식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완별록』에 등장하는 연희패는 중인 및 하층계급에 해당하는 인물들로 복식사분야에서도 가장 연구가 미흡한 부분이다. 이에 『기완별록』에 수록된 왈자패와 놀이패의 복식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조선시대 복식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동시에 조선후기 연희를 복원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투고일** 2018. 3. 10.

**심사일** 2018. 4. 13.

**게재 확정일** 2018. 5. 30.

**주제어(keyword)** 기완별록(Giwanbyeollok), 놀이패(Noripae), 왈자패(Waljapae), 연행복식(Theatrical Costume), 경복궁 중건(Reconstruction of Kyeongbokgung)

## Abstracts

### A Study on the Theatrical Costume Depicted in *Giwanbyeollok* **Lee, Min-joo**

*Giwanbyeollok* records on large-scale performances given to celebrate the reconstruction of Kyeongbokgung Palace in 1865. The reconstruction was a massive civil work project pushed forth by Heungseon Daewongun, and performances were put on by Waljapae and Noripae to comfort people who were mobilized for the toil.

Theatrical costume provides the first and primary visual information to understand a play. The actors' attires give the viewer clues to figuring out what goes on on the stage and immersing into the characters.

This study examines the costumes of Waljapae and Noripae actors appearing in *Giwanbyeollok*. Especially, the performers in *Giwanbyeollok* depict middle- and low-class people, whose outfits have not been much addressed in the study of costume history. An analysis of the theatrical costume portrayed in *Giwanbyeollok* will enrich our knowledge on the dress culture of the Joseon period, which will serve as essential information for the recreation of plays of that era.